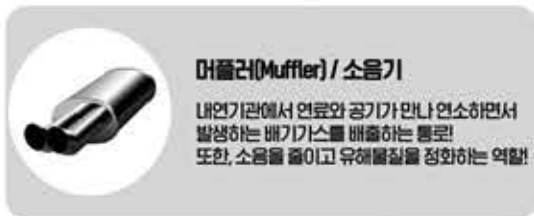


소리로, 냄새로, 색깔로 ... 머플러가 알려주는 자동차 문제점

자동차는 이상증세가 발생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특히 엔진 계통과 관련하여 이상증세를 알려주는 부위가 있다. 바로 '머플러'이다.

머플러의 역할과 머플러를 통해 알 수 있는 자동차의 문제점을 '삼성화재 다이렉트' (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sfdirect)가 소개했다.

■ 머플러의 역할



머플러는 내연기관 차량에 꼭 필요하다. 연료와 공기가 만나 연소를 하면 배기가스가 발생한다. 이때 고열의 배기가스가 밖의 공기와 부딪혀 굉장히 큰 소음을 내는데 머플러는 이 소음을 줄여준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소음기'로 불리기도 한다. 머플러는 배기가스의 유해물질을 정화해주는 역할도 한다.

머플러는 운전 중이나 시동을 멈춘 직후에는 무척 뜨겁다. 그래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 뒷면과 건물이 가깝거나 낙엽이나 종이같은 인화물질이 있는 곳에선 화재의 위험이 있어 공회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

■ 덜그럭 소리가 난다면



머플러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노후로 인한 부식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부

식된 부분이 주변 부품까지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머플러를 통으로 교환할 수도 있고 만약, 주행 중에 발생한 부분적인 불량 혹은 손상이라면 전용 시멘트 등으로 배우는 처치가 필요하다.

■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보통 정상적인 차량은 머플러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냄새가 난다면 엔진 계통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탄 냄새가 난다면 엔진 과열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연료보다 공기 유입이 더 많은 상태를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꼭 정비소로 가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

■ 검은 그을음이 묻어 난다면



머플러에서 검은 그을음이 묻어 나오면 엔진 계통 상태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 인젝터 및 점화플러그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으며, 디젤차의 경우 DPF 고장 의심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의심할 수 있으니, 확인되는 즉시 정비소에서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배기가스 색깔

머플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색을 통해서도 자동차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 **회색:** 엔진오일이 실린더에 들어가 연소 된 것 일 수 있다. 흰색: 동절기를 제외한 때에 보인다면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잘못 유입되어 연료와 함께 연소되고 있을 수 있다. 엔진의 출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
- **검은색:** 공기 유입이 적절하지 못해 불완전 연소가 되고 있을 때 보이는 이상 증세로, 에어클리너나 연료 계통 쪽 문제를 의심해볼 수 있으며, 연비가 저하될 수 있다.

이처럼 이상 증상이 확인되면 정비소를 찾아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수리해야 한다.

또 머플러에서는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연소가 잘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물이 과하게 나온다면 차량 하부 부식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역시 정비소를 찾아 점검해야 한다.

사진=삼성화재 다이렉트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 (323) 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